

# 어게인 2002~ 월드컵 분위기 띄우는 현대기아차·KT

## 현대기아차

역사상 최고 소장품 전시회 개최

## KT

18·23·27일 서울광장 거리응원

국내 기업들이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에 맞춰 다양한 마케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 등 국내외 이슈로 분위기는 예전만 못하지만 기업들이 월드컵 붐업을 일으키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FIFA(국제축구연맹) 공식 후원사인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은 월드컵 개막에 맞춰 자사 제품 홍보는 물론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마케팅에 돌입했다.

월드컵 마케팅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현대·기아차다. 이 회사는 FIFA와 협업해 '현대 모터스튜디오 모스크바'에서 FIFA 월드컵 역사상 최고 소장품 및 전 세계 축구 애호가들의 응원 문화 전시회를 연다. 특히 세계 최초로 스위스 취리히 소재 FIFA 세계 축구 박물관에 소장된 주요 전시품을 옮겨 와 월드컵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러시아 월드컵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해 지원차량 총 954대도 제공했고, 국내에서는 서울·부산 등에 6종류의 야외 응원용 팬파크를 조성하고 K5·K7의 월드



지난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영동대로에서 열린 월드컵 거리응원전의 모습. 모델들이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거리응원 진행 소식을 알리고 있다. /KT

컵 한정판 모델까지 내놨다.

또 현대차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 앞 영동대로 일대에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한 국가대표팀 거리응원전을 펼친다. 현대차는 영동대로 7차선 580m 구간에 메인 무대를 포함해 모두 3개의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과 SM타운 외벽에 설치한 전광판으로 경기 영상을 중계하고 응원전을 만들 예정이다. 스웨덴전(18일)을 시작으로 멕시코(24일)와 독일 전(27일) 등 국가대표팀 경기 일정에 맞춰 진행한다.

이동통신 업계는 KT가 가장 적극적이다. KT는 14일부터 열리는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을 맞아 대한민국 예선전 경기가 열리는 18일, 23일(24일 자정 경기),

27일에 광화문 광장과 서울 광장 일대에서 대한축구협회 및 붉은악마와 함께 대대적인 거리응원을 진행한다.

KT는 대한축구협회의 공식 후원사로 지난 17년간 월드컵을 비롯한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지원하고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부터 거리응원을 이끌어왔으며 TV 광고와 온·오프라인 이벤트, 공식 응원가를 제작하는 등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사 경쟁력을 알리기 위한 해외 마케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성전자는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서 대형 TV 시장 선전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브라질 법인이 공개한 'Emotion for Strong Hearts(가슴을 뛰게

하는 감성)'라는 제목의 홍보 동영상 이그 대포적 사례다.

또 브라질에 판매되고 있는 UHD TV에 스포츠 경기 시청에 특화된 앱도 탑재했다. 이 앱을 통해 스포츠 경기를 4K 초고 화질 화면으로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경기를 시청하면서 출전 선수 정보, 팀 전적 등의 정보도 볼 수 있다.

LG전자는 세계적 축구스타 카카가 등장한 동영상 앞세워 LG TV의 성능 알리기에 나섰다. 카카가 일명 'LG 나노셀 TV'로 불리는 프리미엄 LCD TV의 시야 각 성능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조회수 2억 건을 넘어섰다.

국내에서는 실무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양사는 일부 TV의 판매가를 낮추고, 사은품 증정 정도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게임업계는 월드컵 시즌에 맞춰 신작 축구 게임을 대거 발표하고 기존 축구 게임들은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월드컵 시즌에 온라인 축구 게임 피파온라인4를 선보인 넥슨은 피파 월드컵 모드를 업데이트하며 월드컵 특수를 위한 준비에 나선다.

피파 월드컵 모드는 32개 본선 진출국을 선택해 실제 월드컵처럼 경기를 진행하는 모드로 32강 조별 예선부터 16강 토너먼트, 우승까지 경험하는 VS COM 모드와 16강전부터 시작해 다른 유저와 토너먼트식으로 경기를 진행해 4승시 대회에서 우승하는 VS 유저 모드 등으로 이뤄졌다.

컴투스도 브라질 월드컵 시즌을 맞아 출시했던 축구 카드 RPG '사커스피리츠'의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 등 중요한 행사와 겹치면서 월드컵 분위기가 예전만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며 "첫 경기 결과에 따라 분위기가 좌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 경기에서 비기거나 승리하면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국내 기업들의 마케팅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 QLED TV로 즐기는 게임, 게이머들 주목

### 삼성전자 E3서 체험공간 마련

삼성전자가 최대 게임쇼인 E3에서 대형 QLED TV로 우수한 몰입감과 게이밍 경험을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12일부터 14일까지(현지시간) 3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E3 2018'에 참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 엑스박스(Xbox)의 메인 전시장에 75형 QLED TV 10대로 체험공간을 준비했다.

E3는 게임·엔터테인먼트 업체 400여개가 참여해 신작 게임과 기기들을 공개하는 전시회로, 비디오 게임 분야의 3대 게임쇼이다. 삼성전자는 MS의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전시에서 '엑스박스 원 엑스'의 공식 4K TV 파트너인 QLED TV를 통해 생동감 있는 4K HDR 게임 영상을 보여



12일 게임쇼 E3 2018 삼성 QLED TV 체험관에서 관람객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삼성전자

줬다.

삼성 QLED TV는 사용자가 게임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게임 모드로 전환해 주고, 0.015초에 불과한 입력 지연으로 최고 수준의 게임 환경을 제공한다. 컬러볼륨 100%와 HDR 2000의 밝기 등 초대형 QLED TV의 차별화된 화질로 게임 속의 빠른 그래픽을 그대로 재현하며 우수한 몰입감을 제공한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 SKT·KT, 글로벌 무대에서 5G 기술력 입증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잇따른 수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SK텔레콤은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적 권위의 글로벌 ICT 어워드 '테크XLR8 2018'에서 자사의 네트워크 관리 기술 '탱고'와 'T-MANO'로 '최우수 네트워크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테크XLR8 2018은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기관인 인포마 텔레콤 미디어가 주관한다.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탱고'는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 러닝 기반으로 네트워크 문제점을 찾아 스스로 해결하고 최적화한다. SK텔레콤은 2016년 12월 유선망에

'탱고'를 적용하고, 지난해 10월 무선망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KT도 12일(현지 시간) 인포마 텔레콤 엔지니어 주관으로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5G 월드 어워드 2018'에서 '최우수 5G 코어망 기술상', '최우수 IoT 사업자상', '올해의 블록체인 혁신상' 총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최우수 IoT 사업자상'은 KT가 이미 상용화 완료한 '기아 IoT 전광판'을 출품해 수상하게 됐다. KT IoT기술과 LED 사이니지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광고 콘텐츠 변경하고 제어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차기회장 후보 11명으로 '압축'

### 포스코최고경영자 승계 카운슬

외부 후보군 6명·내부 후보군 5명

포스코 최고경영자(CEO) 승계 카운슬은 차기 회장 후보군을 총 11명으로 압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카운슬은 전날 전체 사외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6차 회의를 열고 외부 후보군을 11명에서 6명으로, 내부 후보군을 10여명에서 5명으로 각각 압축했다.

카운슬은 지난 7일 발표 당시 외부에서 추천받은 후보들이 총 8명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사이 서치펌을 통해 후보자를 추

가 발굴해 11까지 늘렸다가 이번 회의에서 다시 6명으로 축소했다. 카운슬은 다음 회의에서 내·외부 후보자를 통틀어 5명 안팎의 심층면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카운슬은 다음 회의 일정이거나 이번에 압축된 후보들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카운슬은 또 최근 포스코 차기 회장 인선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선을 그었다.

카운슬 관계자는 "현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100년 기업 포스코를 이끌어 나갈 유능한 CEO 후보를 선정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이 정치권 연관

설, 특정 후보를 내정했다거나 배제했다는 설 등을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어 CEO 후보 선정작업에 악영향을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60조원의 매출과 1만7000명이 넘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포스코는 권오준 회장의 사외이후 차기 CEO 선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는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아닌 기업 자율에 맡겨질지가 관심이다. 정·재계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설은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한다.

/양성문 기자

## LG전자, 가성비 최고 중가형 'Q7' 출시

LG전자가 15일 합리적인 가격에 프리미엄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중가형 Q시리즈의 신작 LG Q7을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출시한다.

LG Q7은 18:9 화면비의 5.5인치 '풀비전' 대화면이 채택돼 사용 편의성과 화면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메탈 프레임과 곡면 글라스는 매끈한 심미성과 뛰어난 그립감을 선사하면서 충격에도 강하다. LG Q7은 미국 국방부가 인정하는 군사 표준 규격 'MIL-STD810G', 일명 '밀스펙'의 14개 항목을 통과했다. 방수방진 성능도 최고 등급인 IP68을 충족시킨다.

LG Q7의 주요 기능으로는 ▲사진을 찍으면 이미지 검색으로 피사체의 정보까지 알려주는 똑똑한 카메라 AI 'Q렌즈' ▲셀카를 찍을 때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인물에만 포커를 맞춰 더욱 돋보이게 하는 '아웃포커스' ▲위상 검

출 자동 초점(PDAF) 기술로 초점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잡아주는 후면 1300만 화소(LG Q7+는 1600만) 카메라 탑재 등이 있다.

이밖에 LG G7 씽큐에서 스마트폰 최초로 선보인 'DTS:X' 입체음향 기술도 적용됐다. DTS:X는 어떤 콘텐츠라도 향상된 입체음향 효과를 냄으로써 영화와 게임 등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또, 지문 인식 버튼에 손가락을 갖다대는 것만으로 셀카를 찍거나 화면을 캡처할 수 있는 '핑커 터치', 고속충전을 지원하는 USB C 타입 포트 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급 편의 기능을 대거 탑재했다.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기에 갖다 대면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결제되는 LG전자 온·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LG 페이, 데이터 소모 없이 즐길 수 있는 HD DMB와 F



LG전자가 15일 합리적인 가격에 프리미엄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중가형 Q시리즈 신작 LG Q7을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출시한다. /LG전자

M라디오도 적용됐다.

LG전자는 메모리를 늘린 LG Q7+를 함께 선보여 선택의 폭도 넓힌다. 가격은 램과 저장공간이 각각 3GB와 32GB인 LG Q7이 49만5000원, 4GB와 64GB인 LG Q7+가 57만2000원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